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는 어떤 관계인가?

‘현재 충남에는 171개의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6월 30일 현재 충남 협동조합 개수는 171개이며, 1개의 협동조합당 평균조합원수는 약 10.9명이며, 평균출자금은 14,885천원이다. 연도별 협동조합 신고수리는 2012년 12월 7개로 시작하여 2013년 102개, 2014년 6월말 현재 62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른생산자협동조합과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

그렇다면 충남도민은 협동조합을 왜 설립할까? 장중익·송성호(2013)의 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영리목적과 함께 ‘지역사회’라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사례를 통해 이러한 목적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이하 바른생산자)’은 서천군의 소상공인과 농민들로 구성된 전문식자재 유통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3월에 설립하였다. 현재 협동조합 조합원은 20명으로, 2013년 약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바른생산자의 시작은 조합원인 ‘얼굴있는 먹거리’의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의 실패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도시의 로컬푸드의 성패는 대형소비처확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천군내 대기업 등을 방문하여 식자재 납품을 시도했지만, 어려웠다. 그러던 중,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로부터 월 5천만원규모의 식자재 납품주문이 들어왔고 시작할 수 있었다.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궤도에 오른 바른생산자는 협동조합 설립시 약속한 것과 같이 매년 매출액의 5%(약 2,300여만원)를 서천군노인복지관과 어메니티복지마을에 기부하며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바른생산자는 휴경지를 대신 경작해 주는 ‘대리농 협동조합(이하 대리농)’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리농은 서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떠나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되는 농작물은 ‘바른생산자’를 통해 판매되어 수익이 보장받기 때문에 대리농은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이는 지산지소(地産地消)로서 좋은 사례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제터먹이)’은 로컬푸드 시스템과 농민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제터먹이는 1억 2천만원의 출자금으로 2013년 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콩나물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출하량은 1,400봉지(300g) 정도이다. 이 협동조합 조합원은 119명이며, 생산자·소비자·직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터먹이의 주요사업인 콩나물생산은 한살림의 주요 생산자조직인 ‘푸른들영농조합’의 유기농 콩나물 생산사업을 물려받은 것이다. 또한 제터먹이는 kg당 6천원의 최저가격보장제와 36톤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자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는 푸른들영농조합의 콩나물 재배지 무상임대와 아산 음봉농협의 콩수매자금 지원이라는 협동조합간 협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제터먹이는 콩나물재배만에 그치지 않고 가공품을 통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제터먹이의 최종목표는 지역사회 공동체회복에 있다. 이는 농촌마을이 도시보다 훨씬 복지시스템의 사각(死角)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이에 제터먹이는 ‘늘어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는 마을복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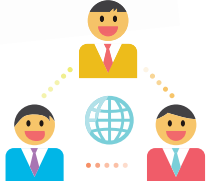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어떤 관계인가?’

두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밀접하다. ‘바른생산자’의 경우, 판로를 찾지 못한 로컬푸드를 지역사회(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가 수용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이에 바른생산자는 조합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했다. 나아가 새로운 협동조합(대리농)을 통해 지산지소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로컬푸드 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터먹이’의 경우도 콩재배를 통한 로컬푸드 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영농조합법인 등과의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제터먹이는 ‘마을복지시스템의 구축’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들(마을조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소유·운영·분배구조의 혁신성 못지 않게,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새로이 시작하는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는 협동조합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충남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_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춘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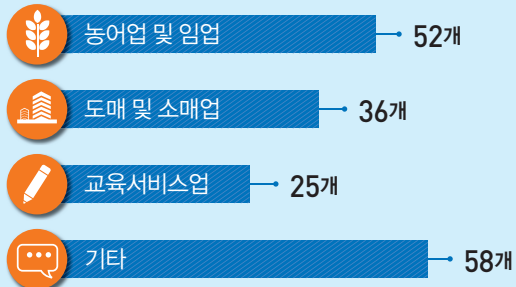
사회와 함께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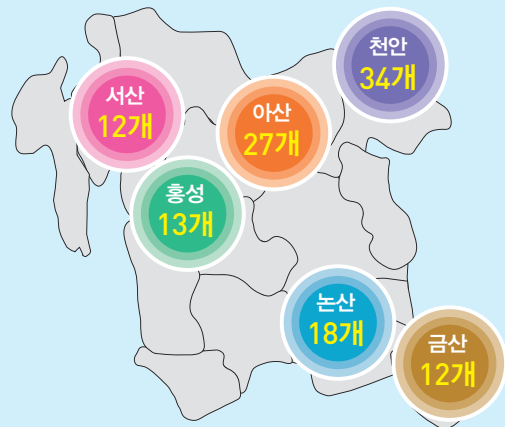
★협동조합이란? 주식회사와는 다른 방식의 사업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충남의 협동조합은 171개(2014.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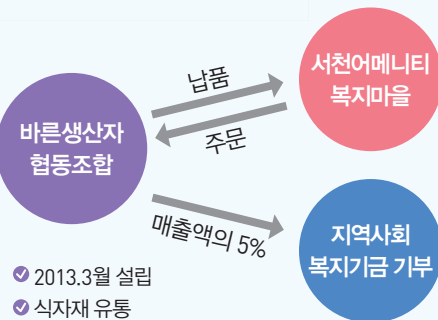


★주요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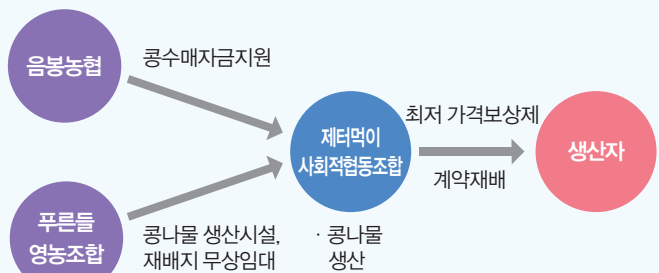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예

1. 지역사회내 수요기반 활용



2.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과 지역의 연계

지역사회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찾기



지역과 사업의
성과 공유하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순환구조 창출”

